## 주변명소

### 화양계곡

명승 제110호로 지정된 화양계곡은 계곡이 웅장한 기암괴석들에 둘러싸여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시원한 계곡을 따라 우암 송시열과 연관있는 유적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양동의 대표 등산코스인 도명산은 백두대간의 중심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원
☎ 043-832-4347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분소)

### 쌍곡계곡

기암절벽과 노송이 어우러져 예로부터 과산팔경의 하나로 손꼽혀온 계곡으로, 다채로운 풍경을 지닌 쌍곡계곡 주변에는 일곱 개의 봉우리가 보물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칠보산, 기암괴석과 암릉으로 이루어진 군자산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4길 5
☎ 043-832-5550 (속리산국립공원 쌍곡분소)

### 만수계곡

주위의 숲이 울창하고 깎아지는 듯한 바위가 아찔한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와 우거진 숲은 잠시 속세를 떠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일원
☎ 043-542-5267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솔향공원

속리산 소나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소나무의 역사와 공예품 등을 볼 수 있는 소나무홍보전시관이 있으며, 체험시설로 도깨비공원, 스카이바이크, 4D영상관, 식물원 등이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600
☎ 043-540-3774 (솔향공원 소나무전시관)

### 우당고택(선병국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로, 우리나라 건축기법이 변화를 보이던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에 지어진 우당고택은 전통적인 한옥 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고 진취적인 한옥구조를 선택한 개화시기의 건축물입니다. 가옥 주변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전통한옥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길 10-2
☎ 043-543-7177 (선병국가옥 종가)

### 삼년산성

신라시대에 축조되었으며, 축성을 시작한지 3년만에 완성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부내륙산성군 ' 중 하나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축 산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1길 104
☎ 043-542-3384 (삼년산성 관리사무소)



## 세조길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 속리산 깃대종 하늘다람쥐

속리산의 깃대종, 하늘다람쥐는 수줍음이 많은 야행성 동물이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늦은 오후 잠에서 깬 귀여운 하늘다람쥐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바위에서 노는 담비의 재롱

바위에서 몸을 비비며 재롱을 부리고 있는 노란 목도리 담비입니다.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숲의 최강 포식자 담비의 반전매력! 그 귀여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세조길에 사는 물고기들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달천 계곡과 저수지는 갈겨니, 버들치, 작은말조개, 흰줄새 등 많은 수중, 수변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QR코드를 찍고 상단의 '영상보기 클릭'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 탐방해설프로그램

### 세조길에서 떠나는 자연이야기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무장애탐방로인 세조길에서 속리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느끼고 세조의 감춰져 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 예약 안내

시　　간 : 매일 10시, 14시(시간 변경 가능)
만나는 장소 :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앞
예 약 방 법 : 통합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 또는 전화(043-540-5827~8)
※ 기상악화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속리산과 세조임금



### 정이품송(正二品松)

천연기념물 제103호, 수령 약 700년, 높이 15m의 소나무로 세조임금이 속리산에 행차할 때 세조임금이 탄 가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려 세조임금으로부터 정이품(장관급) 벼슬을 받았고 이후 '정이품송'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 목욕소(沐浴沼)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복천암으로 가던 중 들려서 목욕을 한 장소입니다. 목욕을 하던 세조에게 약사여래의 명을 받은 월광태자가 나타나 "피부병이 곧 완쾌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라진 후 세조의 피부병이 나았다 하여 '목욕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 복천암(福泉庵)

신라 성덕왕(720년)때 창건되었으며, 세조임금이 스승인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한 사은순행(謝恩巡幸) 및 요양차 방문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법주사의 산내암자로 속리산의 중턱, 세조길의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법주사(사적 제503호)**는
2018년 6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13번째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는 90여 개가 넘는 말사를 거느린 미륵 신앙의 요람이자 호서제일의 가람입니다.
신라 진흥왕(553년)에 의신조사가 삼국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처음 건립하였고, '불법이 머무르는 곳 ' 이라는 법주사의 이름처럼 오랜 시간동안 이 곳에 머물러 있는 법주사에는 국내 유일의 5층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과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연지(국보 제64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의 국보 3점을 비롯하여 보물 13점 등을 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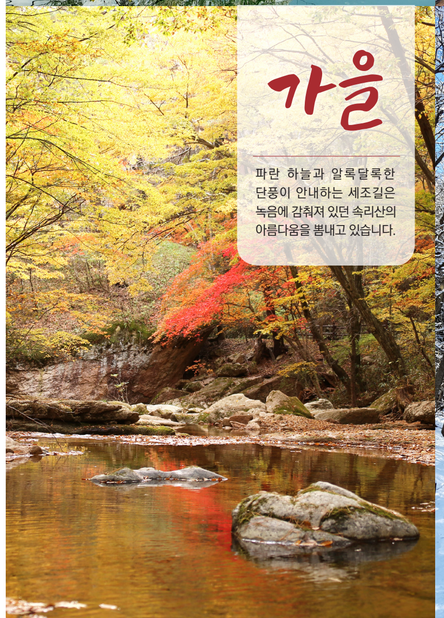
## 봄

따뜻한 햇살과 보드라운 연두빛 새싹으로 물든 세조길에서 싱그러운 봄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여름

녹음이 짙어진 세조길을 걷는다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 가을

파란 하늘과 알록달록한 단풍이 안내하는 세조길은 녹음에 감춰져 있던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봄내고 있습니다.



## 겨울

새하얀 눈으로 덮인 세조길의 반짝이는 눈꽃들은 푸른 소나무와 어우러져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길 세조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SONGNISAN NATIONAL PARK OFFICE

## 세조길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복천암에 있던 신미대사를 만나기 위한 사은순행(謝恩巡幸) 길이자 피부병에 걸린 세조가 요양차 속리산을 왕래했던 길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세조길'로 선정되어 2016년 9월에 개통했습니다.

법주사~복천암(편도 3.2km) 구간으로 남녀노소 쉽게 걸을 수 있고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탐방로 구간이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특색이 뚜렷한 수변경관과 피톤치드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춰 힐링과 건강을 주는 속리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 세조길 안내도 | Sejogil Guidemap




## 주변안내 | Neighborhood 周边指南 · 周边案内




## 건강 증진 효과 (왕복할 경우)

| | |
|---|---|
| 심박수(bpm) | 평균 96bpm (평상시 72~77) |
| 걸음수(걸음) | 평균 10,050걸음 (만보걷기 달성) |
| 거 리 ( k m ) | 6.4km |
| 열 량 ( k c a l ) | 평균 643kcal (1시간이상 달리기 효과) |
| 경 사 도 ( % ) | 경사율 4.2% |
| 소요시간(분) | 2시간 30분 (보통걸음) |
| 피톤치드(ppt) | 3.38ppt |

※ 피톤치드 :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평가기준 최고점수 3.00ppt 초과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SONGNISAN NATIONAL PARK OFFICE